

경주지역 고등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식생활 태도 및 식품기호도

유지은 · 유두련 · 박금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정관리학과

The Dietary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according to Personality Types of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ju

Ji Eun Yoo, Doo Ryon You and Geum Sun Park[†]

Dept. of Home Management,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etary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based on the personality types of the high school students in Gyeongju.

According to the survey on the personality types of the students, the type of SP(Sensing-perceiving) occupied the highest ratio, 46% and NF(Intuition-Feeling) 8.6% and NT(Intuition-Thinking) 8.2% and SJ(Sensing-Judging) 7.1%.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tio of SP(Sensing-perceiving) and NF was the highest. There was a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in the effect of knowledge learned in school on the choice of food; the types of NT and NF did not influence on it. The degree of regularity in the amount of every meal showed a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the personality types ($p<.05$); students with NT and SJ types had the regular meals. The factors which could influence on the dietary behavior were parents(60.7%), friends(16.9%) and mass media and books(13.8%), etc. School education had a little influence on the dietary behavior, only 8.0%. Therefore, more practical education was needed. In the food preference, the type of NF preferred the foods with sweet taste while the others with hot taste.

Key words: personality types, dietary behavior, food preference.

I. 서 론

심리학자 융은 인간은 저마다의 특징적인 선호성이 있고 이 선호에 의해 '유형화' 될 수 있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기능유형' 또는 '심리유형'을 주장하였다(Kim 1999). 융의 이러한 이론을 식생활태도에 접목시킬 경우에 개인의 식생활태도는 형성되는 것이기보다는 이미 저마다의 선호성에 의해 유형화된 것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만약 식습관 및 식품기호도가 선천적 선호성에 의해 유형화된 식생활태도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고유성의 한 부

분이 될 것이며, 이럴 경우 특정식품을 편식한다든지 식습관이 좋지 못할 경우라도 행동수정을 하는데 있어서 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식습관의 양호 또는 불량이라는 지적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라고 여겨질 수도 있을 것이다.

식생활 태도는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는 신체발달 및 성격에 중요한 구실을 하는데 불량할 경우에는 개인의 심리상태와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준다는 보고(Mand & Potgreter 1950, Robert 1979, Han & Lee 1996, Lyu 1993, Kim et al. 1992)가 있다. 음식에서 가리는 것이 많고 기호가 강해 골라먹는 사람 중에 성격상 괴벽이나 결함이 많고 눈치를 잘 보며 신경질이 많은 사람을 볼 수 있다(Kim 1976). Yang(1984)은 좋은 식생활 태도를 지닌 남학생은 진취적이며 능동적이고, Kim(1982)은 그 사람이 즐겨하는 식품의 기호도와 성격간에는 상

[†]Corresponding author : Geum-Soon Park,
Tel: 053-850-3512, E-mail : gspark@cataegu.ac.kr

관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성격과 관련하여 식생활 태도 및 식품기호도에 관한 연구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식품기호와 성격에 관한 연구(O 1982, Cho et al. 1986),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성격(Yang 1984),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식습관과 성격(Kim 1982)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이 후천으로 형성된 식생활습관을 기본전제로 한 연구(Lee 1993)이므로 선천적 선호성에 입각하여 식생활태도와 기호도에 관해 연구한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이를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MBTI(Myers-Briggs Type Indicator)(Kim & Sim 1991)를 제작하여 많은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생의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연구(Jung 1998), 청소년의 성격유형과 학업성취에 관한 연구(Song 1993) 등이 있으나 식생활 태도와 식품기호도와 관련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MBTI를 이용하여 선천적 선호성에 따라 식생활 태도와 식품기호도가 차이가 나는가에 대한 연구분석은 또한 중·고등학교 가정과 학교교육, 그리고 주변의 여러 환경을 통해 식생활 태도가 변화될 수 있는가(Lee & U 1999)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BTI 성격유형검사를 이용하여 경주지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성격형태를 분류한 후 식생활 태도와 식품기호도가 어떻게 나타나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중고등학교 학교 교육에서 올바른 식습관 지도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삼고자 실시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조사대상자는 경주시내 남녀 고등학교 3개교씩을 임의로 선정하여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배부된 설문지는 411부였고 회수된 설문지는 392부였으나 자료분석에 사용한 것은 352부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22일~9월 27일까지였다.

2. 조사내용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부모 나이,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직업, 소득수준, 가족의 수, 형제자매의 수와 성별을 조사하였다.

2) MBTI에 의한 성격유형 분류

사용된 검사지는 한국어판으로 제작된 MBTI 성격유형 검사지(Kim & Sim 1991)로 그림 1의 4가지 선호지표에 따른 성격적 특성의 유형을 표 1과 같이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채점은 GS 자가채점식을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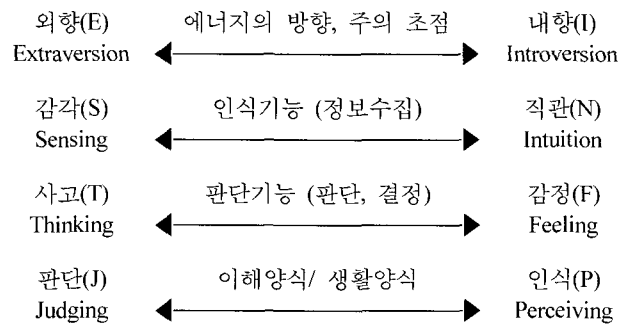


Fig. 1. MBTI 네 가지 선호경향

표 1. MBTI의 네 가지 성격 기질 유형

유형	특성
NT형 ¹⁾ (직관적 사고형)	과학자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유형, 자연현상을 이해하고 조정 통제하고, 예측 설명하는 능력이 우수, 4가지 유형의 기질 중 가장 자기 비판적이다.
NF형 ²⁾ (직관적 감정형)	정열적이고 온화, 직관적, 통찰력이 있다. 주목받는 생을 살며 세상에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독특한 주체성을 가지고 싶어하는 유형. 소설가, 극작가, 각본가, 기자, 시인, 전기작가 등이 많다.
SJ형 ³⁾ (감각적 판단형)	의무와 소속감을 매우 중요시하는 유형. 책임감이 강하며 위계질서에 대한 신념과 욕구가 크다. 대부분이 철두철미한 성격의 소유자로 법칙을 소중히 여기고 전통성을 중요시하며, 사회규범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유형.
SP형 ⁴⁾ (감각적 인식형)	자유롭고 충동적이며 도전적인 형으로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변화가 있는 상황에 많은 흥미를 가진다. 장기적인 목적이나 목표,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기보다는 즉각적인 기지나 상황을 중요시한다.

¹⁾ NT형(Intuition-Thinking).

²⁾ NF형(Intuition-Feeling).

³⁾ SJ형(Sensing-Judging).

⁴⁾ SP형(Sensing-Perceiving).

3)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태도

성격유형에 따른 식생활태도는 전보(Park & Yu 2003)와 같은 방법으로 9항목으로 구성하여 작성하였다.

4) 조사대상자의 식생활 태도의 영향요인

성격유형에 따른 식생활 태도 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종교, 부모님, 매스컴 및 책, 학교, 친구의 5항목으로 문항을 작성하였다.

5) 조사대상자의 식품기호도

성격유형에 따른 식품기호도는 전보(Park & Yu 2003)와 같은 방법으로 「매우 좋아한다」 5점, 「좋아한다」 4점, 「보통이다」 3점, 「싫어한다」 2점, 「매우 싫어한다」 1점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6) 조사대상자의 식품기호도의 영향요인

1군 단백질식품, 2군 칼슘식품, 3군 비타민 및 무기질식품, 4군 당질식품, 5군 지방식품 각 군에 대하여 식생활태도, 성격유형, 일반적인 특성, 맛의 선호도에 대한 식품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7) 맛의 선호도

성격유형별로 맛의 선호도를 단맛, 신맛, 짠맛, 쓴맛, 매운맛 항목으로 좋아하는 순위를 나타내도록 하였다.

3.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본 자료는 SPSS WIN 9.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성격유형에 따른 식생활 태도 및 식품기호도의 차이 검증을 위하여 T-test와 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검증을 알아보기 위해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각 식품기호도에 미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에 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과 같다. 부의 연령인 경우 '41~50세'의 경우가 78.4%로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모의 연령은 '41~50세'가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은 '고졸 이상'이 부의 경우 65.9%, 모의 경우 52%로 부의 교육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352)

변인	집단	N	%
연령	부 41~50세	276	78.4
	51세 이상	76	21.6
	모 31~40세	40	11.4
	41~50세	287	81.5
	51~60세	25	7.1
교육수준	부 국졸	52	14.8
	중졸	68	19.3
	고졸	162	46.0
	대졸 이상	70	19.9
	모 국졸	62	17.6
	중졸	107	30.4
	고졸	152	43.2
	대졸 이상	31	8.8
직업	부 무직	16	4.5
	단순근로자	61	17.3
	자영업자	101	28.7
	사무직	42	12.0
	관리직	14	3.9
	전문직	42	12.0
	기타	76	21.6
	모 전업주부	120	34.1
	단순근로자	49	13.9
	자영업자	78	22.2
사무직	21	5.9	
전문직	15	4.3	
기타	69	19.6	
소득수준	100만원 미만	48	13.6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236	66.6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4	13.0
	300만원 이상	22	6.8
	5명 이상	149	42.3
가족의 수	4명	177	50.3
	3명 이하	27	7.4
형제자매의 수	3명 이상	45	12.8
	2명	105	29.8
	1명	202	57.4

부의 직업은 '자영업자'가 28.7%로 가장 많았고 모의 경우는 '전업주부' 34.1%, '자영업자' 22.2%로 나타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주부의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66.6%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가족의 수는 4명이 50.3%로 가장 높았고, 5명 이상도 42.3%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형제 자매의 수는 1명 있는 가정이 57.4%, 2명 이상이 42.6%로 나타났다.

2. 성격유형별 식생활 태도

성격유형별 식생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매끼 식사량은 규칙적입니까'에서 유의한 차이(p<.05)를 보이는데 NT형과 SJ형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NF형과 SP형은 다소 규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NT는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완벽주의적 기질이 강하고 SJ형은 대체로 정해진 일과가 있는 것을 좋아하며 질서 있고 정돈된 생활을 하는 유형인 반면, SP형은 규칙보다는 변화와 활동을 즐기며 반복적이고 획일적인 것을 싫어하는 유형이다.

'학교에서 습득한 지식이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는가'의 항목에서는 SJ형과 SP형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NF형이 가장 영향을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나 유의적인 차이(p<.01)를 보였다.

3. 식생활 태도의 영향요인

성격유형별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빈도와 백분율을 나타낸 결과는 표 4와 같다.

식생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남학생 59.2%, 여학생 62.4%가 '부모님'이라고 하였고 다음으로 '친구', '매스컴 및 책', '학교', '종교'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학교 교육'의 영향은 8.0% 밖에 되지 않았다.

성격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4가지 성격유형 모두 공통적으로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고 친구, 매스컴, 학교, 종교의 순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별로는 NT형과 SP형은 친구보다는 매스컴 및 책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NF형과 SJ형은 친구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Sin(1990)은 경제적 요인 23.9%, 가족의 영향 18.6%, 심리적 요인 15.7%, 생리적 조건 8.2%, 부모의 지도 7.6%, 지역

표 4. 성격유형별 식생활 태도의 영향요인

항 목	NT	NF	SJ	SP	계
	N(%)	N(%)	N(%)	N(%)	N(%)
종교	1(3.4)	1(0.7)	·	·	2(0.6)
부모님	17(58.6)	80(58.8)	15(60.0)	101(62.5)	213(60.7)
매스컴 및 책	5(17.2)	14(10.3)	3(12.0)	26(16.3)	48(13.8)
학교	2(6.9)	14(10.3)	2(8.0)	10(6.3)	28(8.0)
친구	4(13.8)	26(19.1)	5(20.0)	24(15.0)	59(16.9)

표 3. 성격유형별 식생활 태도

식생활 태도	NT	NF	SJ	SP	F-value
	M±S.D	M±S.D	M±S.D	M±S.D	
친구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4.24±1.02	4.47±.62	4.32±.80	4.38±.67	1.13
매끼 식사량은 규칙적입니까?	3.41±1.09a	3.13±1.14b	3.56±1.12a	3.11±1.02b	1.79*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먹습니까?	2.69±1.14	2.67±1.05	2.80±1.04	2.80±1.01	0.44
인스턴트식품을 좋아합니까?	3.17±1.17	3.38±1.07	3.24±.78	3.30±.93	0.42
음식을 골고루 먹습니까?	3.21±1.18	3.38±.98	3.28±1.17	3.36±.98	0.26
본인의 식성은 부모님과 비슷합니까?	3.21±1.32	3.09±1.18	2.92±1.44	3.17±1.05	0.42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식품선택시 영향을 줍니까?	2.69±1.14ab	2.51±.95a	2.92±.91b	2.85±.94b	3.49**
음식을 먹는 분위기가 식사량에 영향을 줍니까?	2.24±1.19	2.15±1.14	2.12±1.02	2.24±1.03	0.30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량이 증가합니까?	3.07±1.07	2.92±.87	2.84±1.17	3.09±.59	1.25

*p<.05, **p<.01.

적 영향' 7.0%, 문화적 요인 6.6%, 마스크의 영향 4.7%, 학교 교육, 친구 순으로 나타났고 Kim(1999)은 식습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족의 영향이었으며, Kim & Mo(1976)의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지도 56.5%, 가족의 영향 20.8%, 친구의 영향 10.0%, 학교교육 9.2%, 마스크의 영향 2.5%, 종교적 영향은 0.9%로서 부모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하여 부모님과 가족은 식생활 태도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주로 영양건강 정보를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는다(Kim et al. 1992)고 조사된 것을 볼 때 공통적으로 학교교육은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대학생이 교양 영양학강좌 과목을 수강한 후 올바른 영양건강 정보를 제공받고 자신의 잘못된 식생활 태도를 인식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의 변화를 가지게 된 조사연구(Han & Lee 1996, Lee & U 1999, Song 1997, Kim & Lee 1997, Grotkowski & Sims 1977)가 있음을 볼 때 현재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단편적 지식전달의 차원을 벗어나 보다 심화된 영양교육이 절실히 요청된다.

4. 성격유형에 따른 식품기호도

성격유형별 식품기호도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3군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에서 과일류($P<.01$), 녹황색채소류($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모두 과일류를 좋아하지만 NF형($M=4.41$)과 SP형($M=4.34$)은 SJ형($M=4.20$), NT형($M=4.14$)보다 과일류를 더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녹황색 채소류는 NT형($M=3.55$), NF형($M=3.58$), SP형($M=3.59$)이 SJ형($M=3.25$)보다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군 당질 식품은 곡류, 서류, 당류 모두에서 $P<.01$ 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곡류의 경우 4가지 성격유형 중에서 SP형($M=4.06$)이 가장 기호도가 낮으며, 서류는 SJ형($M=4.16$)이 높게 나타났고 당류는 NF형($M=4.28$)이 가장 높으며 NT형($M=3.90$)이 낮게 나타났다. 그 외 단백질 식품과 칼슘, 담색채소와 버섯류, 해조류, 지질식품과 음료, 가공식품에서는 성격 유형에 따른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5. 단백질과 칼슘식품의 기호도에 미치는 영향

식품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성격유형, 식생활 태도관련 변인, 맛의 선호도를 독립변인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6은 단백질과 칼슘의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 것으로 단백질 식품에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성별($\beta = -.207$)에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음식을 골고루 먹는($\beta = .184$) 경향이 클수록 단백질 식품에 대한 기호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모의 학력($\beta = .140$)이 높을수록 1군에 대한 식품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규칙적인 식사($\beta = .131$)를 할수록 식품기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선호하는 음식의 맛($\beta = -.130$)이 단맛에 가까울수록 단백질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백질은 청소년기에 체조직을 구성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청소년기의 식생활태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모님'으로 나타난 표 4의 결과에서 영양지식은 부모의 학력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볼 때(Cho & Han 사대논집) 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권장하여 단백질 식품을 선호한다고 생각된다.

칼슘 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규칙적인 식사($\beta = .186$)가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나타나서 규칙적인 식사를 할수록 칼슘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비타민과 무기질, 당질 식품의 기호도에 미치는 요인

표 7은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음식을 골고루 먹음($\beta = .259$)이 가장 큰 영향변인으로 나타났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경향이 클수록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부모와 식성이 비슷함($\beta = .199$), 형제자매의 수($\beta = -.128$) 등의 순이었다.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은 과일류를 제외하고는 평균값이 낮게 나타나서 청소년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음식을 골고루 먹는 사람은 편식을 하지 않으므로 비타민과 무기질 식품을 고루 섭취한다고 볼 수 있다.

당질 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본 결과, 부모와 식성이 비슷함($\beta = .263$)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와 식성이 비슷할수록 당질 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할수록($\beta = .177$), 선호하는 맛($\beta = -.143$)이 단맛일수록,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선호할수록($\beta = .121$) 당질식품을 선호하였다.

7. 지방식품이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표 8은 지방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한 결과이다.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인은 성별($\beta = -.251$)이었고 그 다음으로 부모와 식성이 비슷할수록($\beta = .206$), 인스턴트 식품을 선호할수록($\beta = .135$), 형제자매 수($\beta = -.165$),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선호할수록($\beta = .132$), 선호하는 음식의 맛($\beta = -.122$)이 단맛에 가까울수록, 부의 학력($\beta = .122$)이 높을수록 지방식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성격유형별 식품기호도

식품	NT	NF	SJ	SP	F-value	
	M±S.D	M±S.D	M±S.D	M±S.D		
단백질 식품 (1군)	육류	3.83±.76	3.81±.74	3.72±.84	3.65±.66	1.41
	난류	3.93±.88	4.01±.81	3.92±.91	3.90±.71	0.47
	어패류	3.41±.68	3.47±.72	3.42±.78	3.31±.61	1.35
	두류	3.62±.73	3.54±.78	3.36±.57	3.41±.68	1.39
칼슘 식품 (2군)	우유 및 유제품	3.79±.82	3.92±.73	4.08±.57	3.86±.64	1.02
	뼈째 먹는 생선	3.59±.78	3.41±.81	3.44±.96	3.43±.79	0.37
비타민 무기질 식품 (3군)	과일류	4.14±.64 a	4.41±.64 b	4.20±.65 ab	4.34±.55 b	2.12**
	녹황색 채소	3.55±.63 a	3.58±.71 a	3.25±.79 b	3.59±.63 a	1.88*
	담색채소 및 버섯류	3.07±.53	3.27±.74	3.28±.61	3.24±.62	0.75
	해조류	3.97±.78	3.93±.65	3.92±.70	3.89±.68	0.13
당질 식품 (4군)	곡류	4.17±.60 a	4.24±.62 a	4.24±.66 a	4.06±.65 b	2.14**
	서류	3.86±.64 a	3.81±.72 a	4.16±.62 b	3.81±.61 a	2.10**
	당류	3.90±.86 a	4.28±.74 b	4.08±.86 ab	4.09±.71 ab	2.93**
지질식품 (5군)	3.54±.69	3.54±.69	3.56±.65	3.45±.61	0.55	
음료	4.28±.65	4.30±.73	4.36±.64	4.33±.66	0.10	
가공식품	3.66±.72	3.84±.72	3.72±.74	3.75±.67	0.74	

*p<.05, **p<.01.

표 6. 단백질과 칼슘식품이 식품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백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칼슘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성별	-.228	-.207***		-3.653	규칙적인 식사	.109
음식을 골고루 먹음	.101	.185***	3.242	♂성별	-.294	-.231***	-4.070
모의 학력	3.127E-02	.140**	2.478	부모와 식성이 비슷	.110	.200***	3.430
규칙적인 식사	6.657E-02	.131*	2.320	인스턴트식품 선호	8.452E-02	.134**	2.362
맛의 기호도	-3.927E-02	-.130*	-2.288				
Constant	2.943			Constant	2.842		
R ²	.152			R ²	.143		
F-value	9.877***			F-value	11.718***		

♂: Dummy 변수: 성별(남-준거집단).

표 7. 비타민과 무기질, 당질 식품이 식품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타민 및 무기질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음식을 골고루 먹음	.144	.259***	4.123
부모와 식성이 비슷	9.699E-02	.199***	3.176
형제자매의 수	-.855	-.128**	-2.319
Constant		3.777	
R ²		.169	
F-value		18.679***	

당질 식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부모와 식성이 비슷	.125	.263***	4.525
인스턴트식품 선호	9.638E-02	.177***	3.031
맛의 기호도	-4.312E-02	-.143**	-2.517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선호	9.491E-02	.121**	2.132
Constant		2.973	
R ²		.117	
F-value		9.239***	

표 8. 지방이 식품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식품 기호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B	β	T
♂성별	-.328	-.251***	-4.411
부모와 식성이 비슷	.117	.206***	3.608
인스턴트식품 선호	8.843E-02	.135**	2.354
형제자매의 수	-1.286	-.165***	-2.966
친구들과 식사하는 것을 선호	.125	.132**	2.362
맛의 기호도	-4.347E-02	-.122**	-2.184
부의 학력	3.146E-02	.122**	2.177
Constant		3.467	
R ²		.174	
F-value		8.301***	

♂: Dummy변수: 성별(남-준거집단).

다. 부의 학력이 높고 총수입이 많을수록 영양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상관관계(Cheong 1999)가 있음을 볼 때 지방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8. 성격유형에 따른 맛의 선호도

성격유형에서 NT형 SJ형, SP형은 '매운맛'을 가장 선호하는 데 반해 NF형은 '단맛'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매운맛'과 '단맛'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

표 9. 성격유형별 맛의 선호도

항 목	NT N(%)	NF N(%)	SJ N(%)	SP N(%)	계 N(%)	합계 N(%)
선호하는 음식의 맛						
단맛	8(27.6)	67(49.3)	7(28.0)	60(37.3)	142(40.5)	
신맛	4(13.8)	9(6.6)	3(12.0)	13(8.1)	29(8.3)	351 (100.0)
짠맛	2(6.9)	19(14.0)	2(8.0)	10(6.2)	33(9.4)	
쓴맛	.	.	1(4.0)	.	1(0.3)	
매운맛	15(51.7)	41(30.1)	12(48.0)	78(48.4)	146(41.6)	

타났다.

Cheong(1999)은 단맛, 짠맛, 매운맛, 신맛에 대한 기호도를 20대에서 60대에 이르기까지 연령대별로 비교해 본 결과 단맛(P<0.01)과 신맛(P<0.001)에서 연령간에 기호도의 차이를 보였고 짠맛과 매운맛에 대한 기호도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단맛에 대한 기호도는 20대가 가장 높고 40대가 가장 낮았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신맛을 좋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일 연령대에 있는 대상자들이 4가지 맛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기호도를 조사하였는데 가장 기호도가 높게 나타난 맛이 20대에서는 단맛인데 비해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모두 매운맛이었으며, 가장 낮은 기호도를 보인 맛은 20, 30, 40대에서는 짠맛인데 비해 50, 60대에서는 역시 신맛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요약

경주지역 남녀고등학생을 대상으로 MBTI 성격유형 검사 방법으로 NT형 (직관적사고형), NF형 (직관적감정형), SJ형 (감각적판단형), SP형 (감각적인식형)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부모의 연령은 41~50세가 가장 많았으며 교육수준에서 고졸이상이 가장 많았다. 식생활 태도에서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NT형과 SJ형이 '매끼 식사량의 규칙정도'가 좋았으며 유의적인(P<.05) 차이를 보였다. 식품기호도에서는 과일류, 녹황색 채소류, 곡류, 서류, 당류가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 식생활 태도의 형성요인은 부모님(60.7%), 친구(16.9%), 매스컴 및 책(13.8%)의 순으로 영향을 주었으며 학교교육은 8.0%로서 낮게 나타났다. 맛의 선호도에서는 NF형은 단맛을 선호하고 다른 유형은 매운맛을 좋아하였다.

V. 문헌

- Kim MH(1999)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personality preference types and a class social environmen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 Mand Everitt, Potgreter(1950) : A Study of children's eating habits. J Home Ec.:42.
- Robert BSC(1979) : The Self-Concept as a factor in diet selectron and quality. J Nutr Ed.:11.
- Han MS, Lee YM(1996) : Nutritional knowledge and eating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in Sunnam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1(3).
- Lyu ES(1993) : A Study on dietary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Pusan. Korean J. Dietary Culture 18(1).
- Kim JH, Lee MJ, Moon SJ, Yang IS(1992)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Dietary Culture 17(1).
- 김숙희(1976) : 전계서. 경우사.
- Yang DB(1984) :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a change of food habits and a factor characteristics.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 Kim KN(1982) : A Study eating and characteristic. The Korean Journal of Nutrition 15(30):194.
- O SM(1982) : A Study of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nd food preference of the five grade student.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 Cho HY, Han HJ, Kim MH, Lee KY, Lee SJ, Lee YC, Wang YH(1986) :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nutritional statu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s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Seoul. Korean J Nutr 19(4).
- 이정열(1993) : 특수영양학. 신광출판사.
- 김정택, 심혜숙(1991) : MBTI안내서. 한국심리검사연구소.
- Jung SS(1998) :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stress and a method cope according character types of a college student. M.S. Thesis, Myongji University.
- Song JG(1993) : A Study on relationships between character types and scholastic achievement of teenager. M.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ogang University.
- Lee MS, U MK(1999) : Changes in food habit, nutrition knowledge and nutrition attitudes of university students during nutrition course. 32(6):739-745.
- Park GS, Yoo JE(2003) : A Study of the dietary behavior and food preference of adolescents. J East Asian Soc Dietary Life 13(1):19-24.
- Sin GH(1990) : A Study on the eating behavior and personality. M.S. Thesis, Kangwoon University.
- Kim KN, Mo SM(1976) : A Study of children's dietary habits, focusing on parental influences. KJN 9(1):25-42.
- Kim JH, Lee MJ, Moon SJ, Yang IS(1992) :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Dietary Culture 7(1).
- Song YS(1997) : The effects of nutrition course on the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s in college students. Korean J Nutr 2(1):86-93.
- Kim KN, Lee KS(1997) : Effects of nutrition education on nutrition knowledge, dietary attitudes, and food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an J Community Nutr 2(1): 86-93.
- Grotkowski ML, Sims LS(1977) : Nutritional knowledge, attitudes, and dietary practices in the elderly. J Am Diet Assoc 72:499.
- Cho HS, Han OB. A Study on the appearance satisfaction, sociality, and achievement motive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Korea University. college of education. 사대논집 18권.
- Cheong HS(1999) : A Study on the food habit and food preference of men on KyungNam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14(3).

(접수일: 2003년 7월 30일, 채택일: 2003년 8월 19일)